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순직, 대담한 性

30대 중반의 P씨는 소시직 외모도 준수한 편
에 남부러울 것 없는 소위 잘 나가는 인물이었
다. 그러나 말 못할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굽다고 좋아하지 말라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에게서 바세린을 주입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귀가 솔깃해진 P씨는
내친 김에 낱을 잡아 주사기로 바세린을 음경에
주입하는 속칭 '야매'(불법적인 의료행위)수술
을 받게 되었다.

'인테리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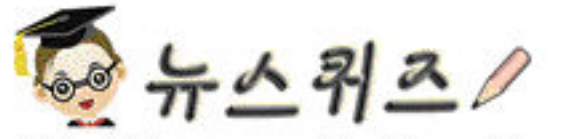
통증은 잠시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대한
음경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마스코트가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으쓱해
진 어깨로 보란 듯이 목욕탕을 활보할 수 있었다.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된 P씨, 부인에게서 너무
커져 버린 성기로 인해 성교 시 아프다는 호소를
자주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음경이 심하게 아프면서 진물이 나와 급히 병
원을 찾았다.

경의 깊은 부위를 파고 들어가 심하면 귀두, 음
낭 또는 하복부까지 퍼지게 되고, 심지어 작은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치명적인 폐색전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처음엔 아무 이상
이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조금씩 나타
나는데, 피부가 붉어져 진물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
음경의 이물질(바세린, 파라핀)은 빨리 제거
되어야 한다. 방치하면 할수록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침범된 부위를 피부와 함께 다 제거
하고, 만약 피부가 부족하면 피부이식을 해서 결
손된 부위를 덮어줘야 한다.

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술 받는 것이 현실이다. P
씨의 경우는 바세린을 주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음경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어쨌든 이런 '인테리어'가 암암리에 뒷목에서
행해지는 이유는 남자의 과시욕과 여자를
더 만족시키려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비용적
인 부분 때문이라도 불법적인 수술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후유증과 나중에 반드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종적인 고통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요새 방콕이라 아이들 포경수술을 해주려고 병
원을 찾는 부모들이 많다. 간혹 엄마들은 "선생님,
우리 아이는 말아서 해 주세요"라며 끝날 부탁을
한다. 제거할 피부를 말아서라도 아이 고통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은 부모도 마찬가지가 보다.
<태마릴 피부비뇨기과 원장>



49.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한국선
수로는 네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소속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미
들즈브러가 이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축구종
가' 잉글랜드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꾸리게 됐
습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
트넘)·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네 번
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종국 ② 박주영 ③ 이천수 ④ 조재진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1명
대금 100만원, 2위 50만원, 3위 20만원, 4위 10만
원, 5위 5만원, 6위 2만원, 7위 1만원, 8위 5000원
을 지급합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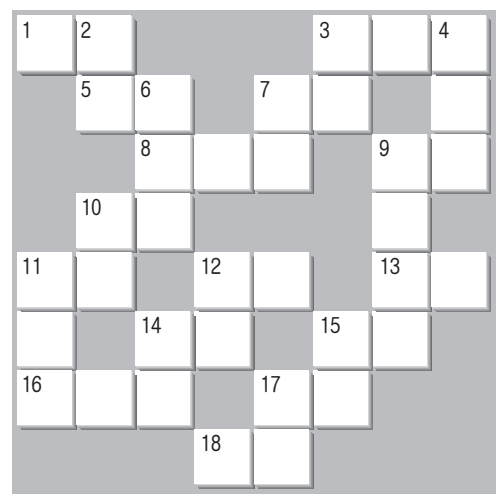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아군 주력 부대가 공격.철수 작전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부대가 사격으로써 적의 저항
이나 공격을 분쇄하거나 약화시키는 일. 3.어떤 지
역의 특수한 기구나 토질로 인해 발생하는 병. 5.
답답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온몸과 눈 등이 누
렇게 되는 병. 7.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이 학생들
이 자체로 학습하는 수업. 8.한 학교를 같은 해에 나
온 사람.→동기생. 9.아별로 안(案)을 잡음. 또는
그 안.→첫안. 10.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
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이 일
은 ~만 알고 있게. 11.일이나 사태가 잘못돼 결판
이 남. 또는 그 판국. 사태는 ~으로 치달았다. 12.
그는 결승전에서 3~3안타를 쳤다. 13.도료를 수
도로 하는 이웃나라. 14.어떤 일을 치르거나 길을
떠나거나 할 때 운수가 좋은 날을 가리켜 고풍. 15.
남자의 웃옷과 가터라는 뜻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 그는 제사를 지
내려고 ~을 정제했다. 16.날치기, 소매치기 등 행
동이 날랜 졸도독이나 그 무리를 두루 이르는 말.
17.돌째 딸을 이르는 말. 18.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물건이나 사람.→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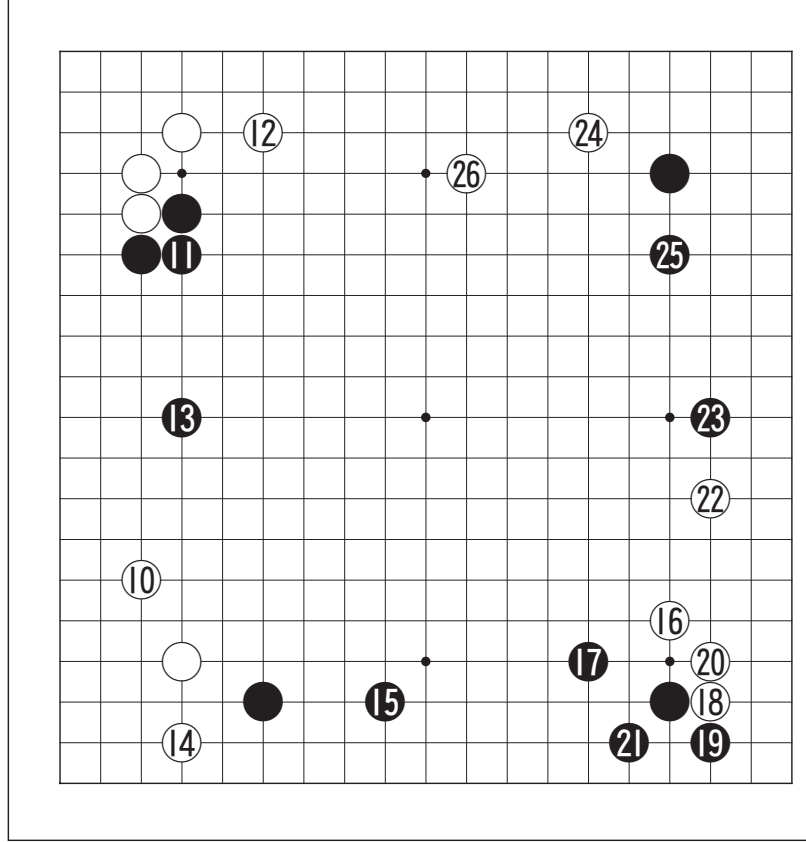
↓ 세로풀이

2.경기(景氣)가 좋음. 또는 그런 상황.→불황. 3.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4.왕고 있는 사
람을 찾아가서 병세를 알아보고 위안하는 일.→문
병. 6.보통 산등성이나 산비탈 등에 가난한 사람들
이 모여 사는 곳을 이르는 말. 7.이 야생화는 ~ 능
력이 대단하다. 9.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10.다른 물건이 닿거나 묻어서 생긴 자라. 또
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가 달라진 흔적.
또는 부스럼이나 상처가 생겼다가 아문 자리. 여
드름 ~. 바퀴 ~. 11.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



<함께 풀어봅시다 236회 정답>

조선 시대에 간단한 의술을 익혀 내의원과 혜민서
에서 심부름하던 여자. 17.하던 일이 계획이나 의
도에서 벗어나 틀어지는 일. 그 일에 ~이 없도록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라.
▲지난주 정답자
양선명·광주시 서구 금호동
방수중·광주시 광안구 장덕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
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바둑소식
루이, 여류명인전 3연패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지난 26일 스카
이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여
류명인전 도전 3번기 제2국에서 이다
해 3단을 233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종
합전적 2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루이 9단은 지난 1999년 창설된 후 8
회까지 치러진 여류명인전에서 대회 3
년 연속 우승(6, 7, 8회)과 함께 통산 6
차례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루이 9단은 이날 초반 백을 잡은 이다
해 3단의 공세에 말려드는 듯 했으나,
막판 초읽기에 몰린 이 3단이 흔들리는
틈을 타 승부를 손쉽게 마무리했다.
우승상금은 1200만원(준우승 500만
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음 12월 11일 癸亥)

- 36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48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니
이웃과 정을 나누며 지내라. 60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72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4년생 자신 있
게 추진하면 득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41
37년생 초행길은 불편하니 살펴서 행동하라. 4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61년생 순공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새로운 인연은 으
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 20, 38
38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니 놓치지 마라. 5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마라. 62년생 새 반 생각
하고 행동하면 실패는 없으리라. 74년생 순공과 역풍이 교차하니 중
심을 잡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39년생 바깥된 인심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51년생 정신이 흔들
리니 신상의 안정을 취하라. 6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
양하듯 지내라. 75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정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34
40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
로우니 식구의 건강을 살펴보라. 64년생 재물이 사기에 있으나 욕심
은 내리마라. 76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쌓아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 21, 32
41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3년생 구실이
따르고 신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65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
념해야 뒤떨어지 않으리라. 77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
가져도 조심해야. 행운의 숫자 : 18, 35
42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4년생 암중모색
을 하나 걸지는 않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78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
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 28
43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5년생 의외의 이
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7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79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 44
44년생 생활의 무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6년생
재물과 처 사이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8년생 불
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80년생 시류와 뒷사람으로 인해 불연
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17
45년생 순수에 항해하는 격이다. 5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
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9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보라.
81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43
46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8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
다. 70년생 부부간의 연정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
도 예상 못한다. 82년생 급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
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02, 31
47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59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뢰로써 진행하라 신용이 무너지면 끝으로 추락한다. 71
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83년생 일일하며 병자기
상사니 신심하지는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2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29> 오하이오 니혼고 <829> 니하오 쥬구워 <20> 한자 이야기 <447>

Anything I can ~?
제가 ~ 일이 있습니까?
A: The party's great. What are you doing back here in the kitchen?
B: I have a few things to finish.
A: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B: Sure. There's a salad in the refrigerator. Please set it on the buffet.
A: 야, 대단한 파티야. 왜 자네는 부엌으로 돌아온 거지?
B: 마무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서.
A: 내가 도와 줄 일 있어?
B: 좋아, 냉장고에 샐러드가 있거든. 찬장 위에 놔둬.
buffet : 찬장, (식당·다방의) 카운터
응용표현
- Anything I can do for you?
제가 도움 일이 있습니까?
-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제가 도움 일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財布(さいふ)の紐(ひも)の固(かた)い
구두쇠다
A: 今日の會食代、全額(ぜんがく)課長持ちだつて。
B: へ、財布(さいふ)の紐(ひも)の固(かた)いあの課長が?
A: 次長(じちょう)に昇進(しょうしん)が決(き)まったんだつて。
B: そう、それはおめでたいね。じゃ、遠慮(えんりょ)なくじゃん
じゃんやろうか。
A: 오늘 회식비 전액 과장님이 낸대.
B: 해! 구두쇠인 과장님이?
A: 차장으로 승진이 결정되었대.
B: 그래, 그게 축하합니다. 그럼, 사양 말고 파팍 마실까.
全額(ぜんがく) : 전액
課長(かちょう)持(も)ち : 과장님 부담
昇進(しょうしん) : 승진

条件真不错
조건 정말 괜찮다
A: 你们家客厅真小啊!
B: 是啊, 客厅真小啊!
A: 条件真不错.
B: 我们每人一台电脑, 一部电话, 还有还有洗衣机, 复印机, 沙发.
A: 你们家客厅真小啊!
B: 是啊, 客厅真小啊!
A: 条件真不错.
B: 我们每人一台电脑, 一部电话, 还有还有洗衣机, 复印机, 沙发.

肝胆相照 (간담상조)
간 간, 숭개 담, 서로 상, 비출 조
간담상조(肝胆相照)는 서로 간과 숭개를 꺼내 보인다는 뜻
으로, 상호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귀는 것을 비유한다.
따라서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친구사이를 말한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곡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문장
으로 유명했던 여덟 사람을 말함) 중 고문운동을 부흥시킨 한
유(韓愈)는 친구 유종원(柳宗元)이 자신도 유주자사로 좌천되
었으면서도 파주자사로 좌천된 친구 유몽득(劉夢得)을 동정하
는 우정의 모습을 뒷날 유종원의 묘지명(墓誌銘)에서 다음처럼
쓰고 있다.
"사람이란 공경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절의(節義)가 나타나
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가 때면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
며 때로는 놀이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부르고 한다. 또 흰소리를
치기도 하고 지니던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손을 맞
잡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간과 숭개를 꺼내 보이며(肝
膽相照) 해를 가리켜 눈물짓고 살든 죽든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한다.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일단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관
계가 생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왔냐는 듯 안면을 바꾼
다.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어 구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
뜨리고 위에서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에 널리 있다."